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0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7년 12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역량*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ildren's Character Competence



Purpos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간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굿네이버스는 미래사회 아동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성 역량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에서는 인성 역량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성실태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아동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본 이슈포커스에서는 인성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제언을 공유하고자 한다.

Key message |

- 부모의 의견존중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가정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을 내재화하는 곳이다. 따라서 가정이 아동 인성교육의 시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환경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 학교를 통한 인성교육은 가정환경으로 인한 인성 역량의 편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아동의 인성 발달은 '앎'과 '실천'의 유기적인 통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아동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 인성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10호의 내용은 2017년 12월 발간 예정인 굿네이버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역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Situation |

4차 산업혁명시대 왜 ‘인성’이 화두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생산라인과 기계의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화 시대에서는 일이 세분화되고 분업되었다. 강철, 석유, 자동차 산업에 컨베이어벨트라는 생산라인이 도입되면서 여러 명의 숙련된 기술자가 협업하여 하나의 생산품을 완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자 자신의 배치된 생산 라인에서 표준화되고 매뉴얼화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은 공장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및 사회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는가가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었다(Lobel, 2016). 그리고 지시된 업무를 잘 할당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재로 평가받았다. 산업화 시대를 지나 컴퓨터와 인터넷 발달이 주도한 정보화 시대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인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등으로 불리는 급격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 디지털 기술변환(intelligent digital technology transformation)에 의한 혁명을 말한다(Schwab, 2016).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상에 던져졌다.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 근 미래에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경제영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그리고 다시금 주목되고 있는 인성

법률, 의학 회계 등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었던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가령,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암 진단에 활용되고 있으며 1초에 10억장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인공지능 로봇 ‘로스’가 대형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의 기술혁명과 달리 우리에게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알고리즘화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의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과 기계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WEF(2016)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향후 5년 이내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고용환경이 달라지면서 오히려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 2017). 이러한 양극화는 개인과 개인 간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가속화 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과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비롯하여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산업에 집중 투자한 국가들은 새 산업 생태계의 주도권을 쥐고 전 세계의 경제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고도의 지식과 창의력이 있는 개인과 비숙련 기술만을 가지고 있는 개인 간의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다. 비단, 고용불안과 불평등의 심화 뿐 아니라 다가올 시대는 고령화,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래사회 구성원들의 배려와 공동체 구성원들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성격의 문제들이다(김동일 외, 2016).

따라서 미래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전문성과 창의성 뿐 아니라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성은 도덕적 자기성찰 능력과 자기관리 능력 등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사는 역량,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 등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역량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다시 부연하면, 인성은 성품, 품성, 사람됨, 도덕성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관계적이고 사회적 차원의 사회성, 시민성, 공동체성, 인류애 등을 포함하는 역량적 차원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김동일 외, 2009; 정창우, 2015; 정창우·손경원·신원영, 2015 조난심 외, 2004; 현주 외, 2014). 따라서 미래 인재에게는 기술발전 등으로 야기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그 밖의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 국가만의 시민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 공공선을 추구하고 소통과 타협, 배려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공존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인성, 인성역량

굿네이버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서 아동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자기관리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 생각,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자신에 주어진 책무에 책임감 있게 임하는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대인간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 간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세계시민 역량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아동 인성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사회 단면

과잉된 교육열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에서 300년에 걸쳐 이룬 근대화, 산업화의 변화를 30년 만에 압축성장을 하며, GDP 세계 11위의 경제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압축성장은 사회 곳곳에 여러 폐해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특히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인적자원이 중시 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은 기형적인 교육문화를 낳았다. 입시와 경쟁이 강조되는 교육환경은 지나친 학벌주의로 흘러가면서 적성, 흥미 등을 고려한 교육이 아닌 단순히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였다. 입시가 강조되고 점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만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치켜세우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주변인으로 밀려나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아이들로 하여금 성적이 우수하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착각하게 하거나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는 좌절감을 갖게 한다. 자신만을 그릇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뿐 아니라 학교와 교실에서 함께하는 친구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바라보게 한다. 한편, 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은 더욱 자녀교육에 올인하게 하고 과도한 교육열을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접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 로드맵을 정해놓고 학교의 성적과 학원 스케줄, 친구관계까지 철저히 관리할 뿐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취업, 배우자 선택까지 일일이 관여하고 통제하는 헬리콥터 맘을 자처하기도 한다.

오로지 대학 입시와 출세를 목표로 하는 교육환경과 다른 아이보다 더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부모의 열망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의 빈곤, 정신적 황량함과 무기력을 가져오며, 도전의식보다 의존성에 빠지게 한다(김왕배, 2014). 또한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몰리면, 내면의 불안과 우울 또는 공격적인 행동 등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표출하는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우울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한 아동은 2015년 한해에만 6만 여명에 달한다고 한다(중앙일보, 2016. 9. 22). 심리적 압박은 아동들의 내적인 문제 뿐 아니라 학교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채진영, 2012). 쥐도 공지에 몰리면 고양이로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성은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뉴스에서 우등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나, 성적에서 오는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자신에 돌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 역시 아이들의 공격성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이다.

물질만능주의 가치관

압축성장의 또 다른 병폐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혼돈과 상실이다. 무엇이 정당한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등 우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구호를 쫓아 성장에 매달려 왔다. 빠른 속도의 성장은 탈빈곤이란 선물을 가져오기했지만, 삶의 가치를 소유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하게 되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할수록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신념은 우리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2015년 시민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의 학생의 17%,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항목에 '예'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2016). 고등학생의 경우는 과반이 넘는 학생이 10억이라는 돈과 자신의 도덕성, 양심, 자유 등의 가치와 맞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점은 같은 질문을 2년 전에 했을 때 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렇듯 돈이 곧 권력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릇된 신념은 성인 뿐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까지도 병들게 하고 있다.

소통의 단절

방과 후 학원을 쫓아다니기에 바쁘고 부모는 일터에 발이 묶여 저녁이 없는 가족의 삶은 가정 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왔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계 최고이듯이 부모는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세계 최고이다¹⁾. 이러한 노동환경 속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충분한 대화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어머니와 한 시간도 대화를 하지 않는 비율은 41.9%, 아버지의 경우 5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가족 구성원끼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모의 바쁜 일상은 소통의 기회를 가로막기도 한다.

1)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평균 206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763시간) 보다 306시간이 길며, 35개 평가 대상국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OECD,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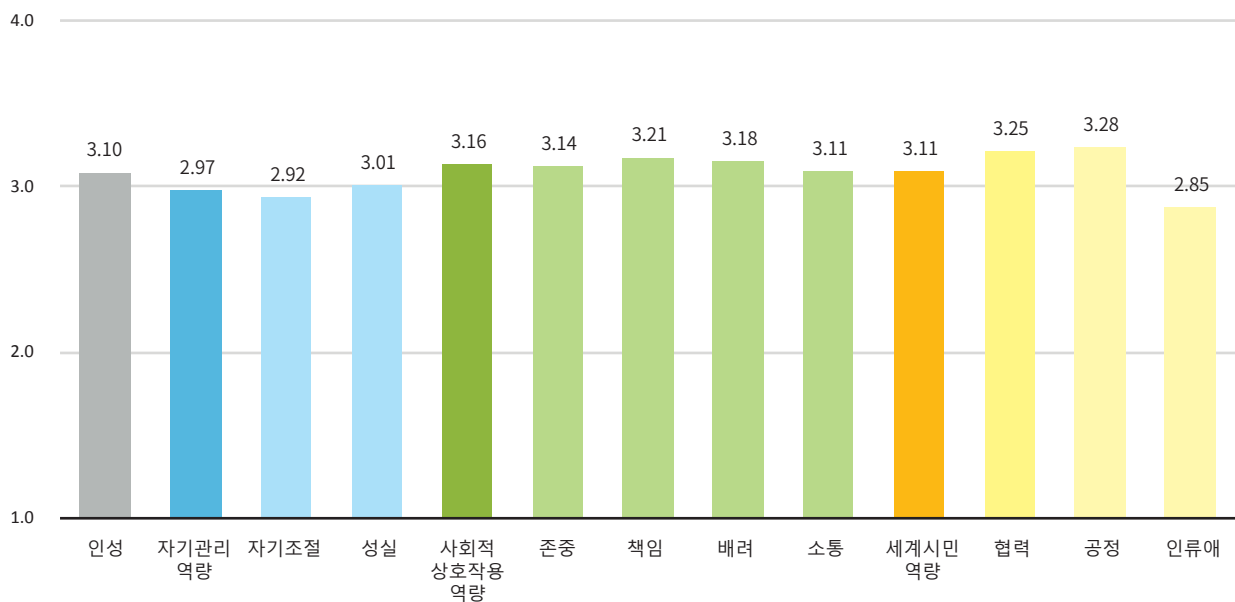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방식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인터넷 및 게임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대화는 자녀의 정서조절과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며(류성진, 2009; 송진영, 2016),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내적 힘을 키우는데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성화 · 김희화, 2016). 또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일방적이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 할 경우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관심과 애정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채우려 하는 경향이 강해져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김연화 · 정영숙, 2005)

‘아동인성실태조사’를 통해 본 우리 아동의 인성

과잉된 교육열, 물질지향적인 가치관, 소통이 단절된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불어 사는 삶이나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무기력하며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이 미약한 세대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기술하였듯이 개인의 안녕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 발전 측면에서도 공존의 능력을 갖춘 인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미래사회 주역인 아동의 인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야 한다.

이에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인성 실태 조사²⁾’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인성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은 무엇인지, 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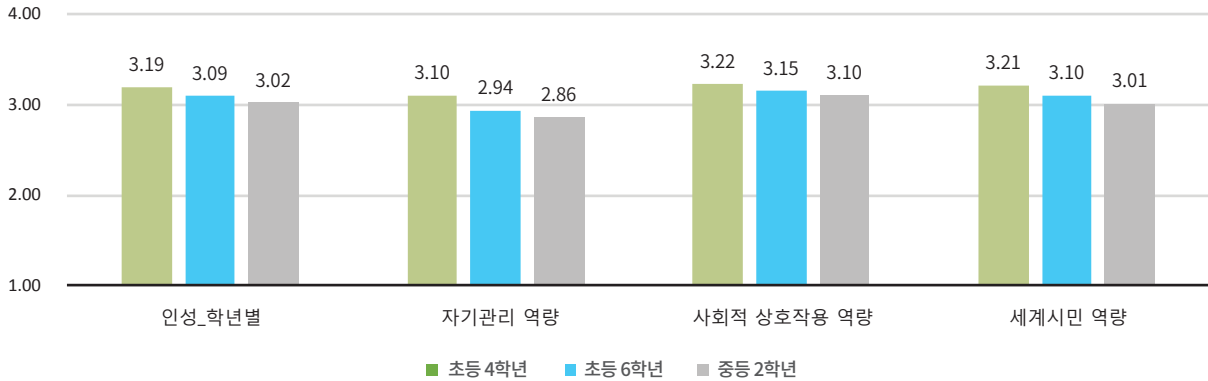
<전반적인 아동의 인성 수준>



전체 아동의 인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세계시민 역량, 자기관리 역량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를 다시 덕목별로 살펴보면, 평균값이 높은 덕목은 공정, 협력, 책임이었으며, 평균값이 낮은 덕목은 자기조절, 성실, 인류애이다.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하위 덕목은 인류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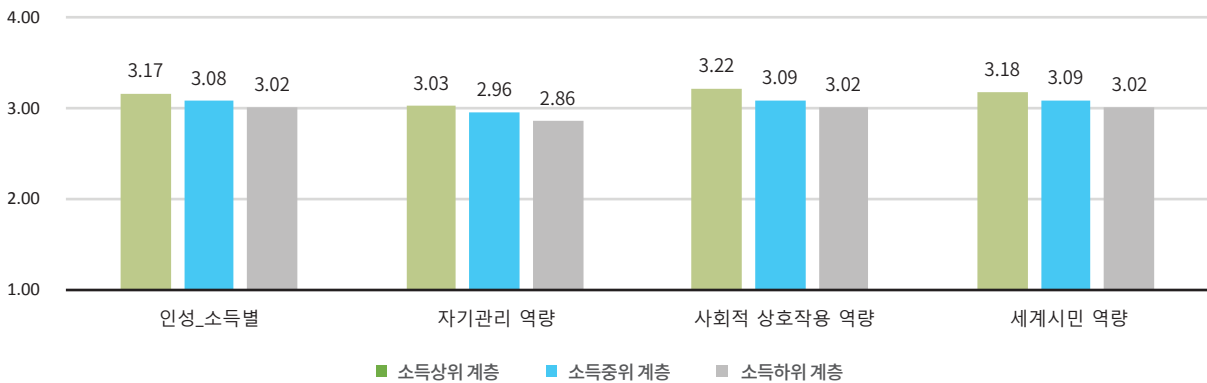
2) 굿네이버스는 아동의 자기관리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세계시민 역량의 3가지 차원으로 아동 인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16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 및 부모(보호자) 각 8,915명(총 17,830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성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아동권리 이슈포커스에 실린 통계 결과는 아동인성실태조사의 결과 일부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학년에 따른 아동의 인성 수준>



아동의 인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자기관리 역량이 학년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 아동의 인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일까? 발달상 중 2시기는 가장 최적화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속아내는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뇌의 전전두엽 기능 일시적 저하되고 아이들은 인지, 감정, 행동에 대한 결과 예측이 취약하며,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감정적으로 해석한다(김봉년, 2012).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는 중 2년의 특성이 뇌 발달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소득에 따른 아동의 인성 수준>



아동의 인성은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계층이 낮은 아이들의 인성수준이 모두 낮은 것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된다.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가정내 인성교육이 잘 이루어져 인성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조사에서는 소득계층별 집단의 평균값을 살펴보는데, 소득계층이 높은 집단은 집단 안에서 개별 격차가 작고 소득계층이 낮은 집단일수록 아동의 인성 수준이 집단 안에서 일관적이지 않고 개별 격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

아동인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요인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자 가정환경(친밀성, 과보호, 부모의 의견존중, 가족식사 횟수)과 학교 및 지역사회 환경(학교풍토, 교사관계, 참여활동)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관리 역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세계시민 역량 모두 가정환경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모의 의견존중이 다른 변인에 비해서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아동 인성에 대한 영향력을 가정내 소득과 부모의 소득수준과 비교했을 때, 부모의 의견존중이 가정내 경제적 환경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공통적으로 아동의 인성발달에 있어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후원, 정책참여, 교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계층에 따라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소득상위 계층과 소득중위 계층은 부모관련 요인이 인성 역량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하위 계층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세계시민 역량에서 학교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Recommendations |

아동인성 회복의 첫 단계, '가정'의 기능 회복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모방과 관찰을 통해 학습한다. 아동에게 있어 일차적인 모방과 관찰 대상자는 부모이다. 부모의 말투, 태도, 행동을 통해 아이는 인성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견존중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존중받아 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기울인다면, 아이는 부모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협력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아이는 학원으로 물리고 부모는 일터에 발이 묶여 서로간의 존중할 기회조차 단절되고 있다. 가정이라는 곳은 부모를 비롯한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성을 내재화하는 곳인데, 우리 사회의 가정은 인성을 내재화를 시킬 절대적인 시간조차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이 아동 인성교육의 시작점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개별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의 인성역량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친화적 환경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란 가정 내 소통과 친밀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직장 문화, 가정-학교 간 소통 등 전사회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가족 사랑의 날’, ‘밥상머리 교육’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착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 등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부모-자녀 간 관계의 친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가정-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친화적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 참여휴가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휴가를 주도록 하여 인성역량을 기르는데 필요한 봉사활동, 부모교육 등 활동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아동 인성역량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학교의 인성교육

굿네이버스 아동인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 계층일수록 아동의 인성 발달에 교사와 학교의 영향력이 중요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교육을 통해 평등하게 주어지는 인성역량교육의 기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거시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가 인성역량을 기르는 데 점진적으로 더욱 비중을 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었으며 일부 교육목표를 통하여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성 등의 인성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교육의 인간성 및 교육목표에서 인성역량에 더욱 많은 중점을 두어 인성교육을 교육의 핵심 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인성교육 전문성이 더욱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예비교원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을 길러내는 사범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서 인성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인성교육 지도역량을 위한 교양교과 등을 개설하고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인성위기 학생에 대한 대처 및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성위기 학생 지도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 및 교실실습에 있어서도 인성교육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면 이러한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교사-학생 간 관계도 함께 개선되어 건강한 상호작용과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마을이 필요한 인성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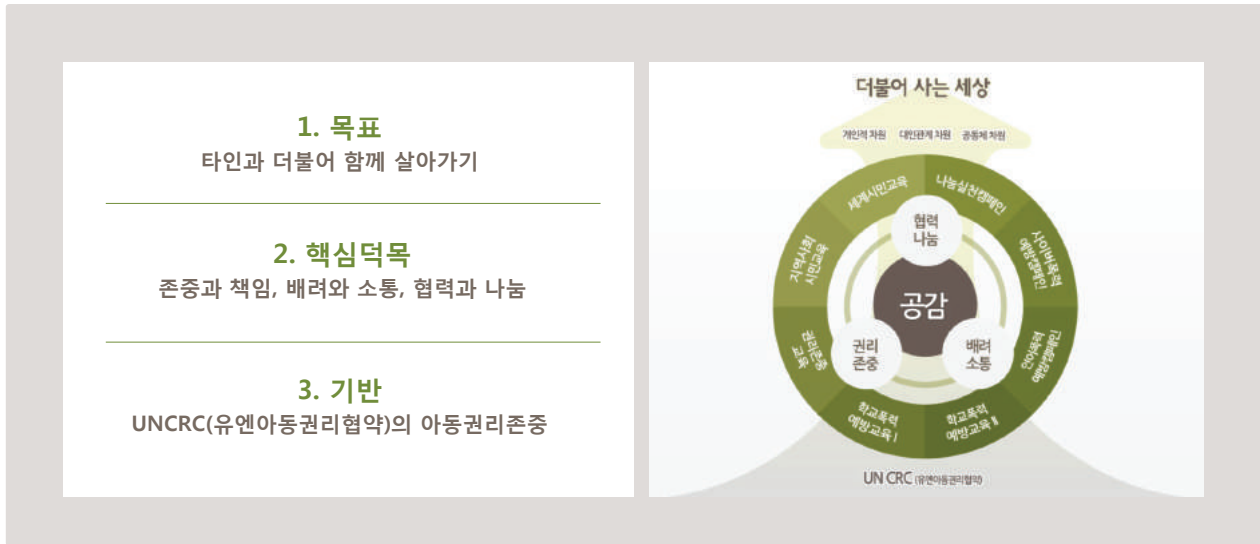
아동의 인성 발달은 ‘앓’과 ‘실천’의 유기적인 통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현주 외, 2014). 이러한 통합의 과정은 특정한 공간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체득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 인성교육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많은 아동 NGO, 사회복지기관들이 자유학기제 등의 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교에 인력을 파견하고 학생들의 인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인성함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굿네이버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나눔실천캠페인’에 참여한 아동의 인성역량이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참여 활동을 통해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의 경험을 통해 지식에서 머무는 인성교육이 아닌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인성교육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가정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참여 경험이 인성 발달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이 나타나, 아동이 성장 할수록 아동이 자신이 아는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체험의 장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근본 바탕이 되는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 관련 기관들이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인성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료, 교재 등을 서로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면 인성교육의 효율성이 더해질 것이다.

Case Story | 굿네이버스 인성교육

굿네이버스는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목표로 존중과 책임, 배려와 소통, 협력과 나눔의 핵심덕목을 가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인성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자 하며, 개인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	직접교육(인식/공감)	실천교육(실천)	Advocacy/Network
개인적차원	 권리존중교육	-	
대인관계차원	 학교폭력예방교육 I, II	 언어폭력예방캠페인(초등/청소년) 사이버폭력예방캠페인(초등/청소년)	청소년동아리 교사자문단
공동체차원	 지역사회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진로편]	 나눔실천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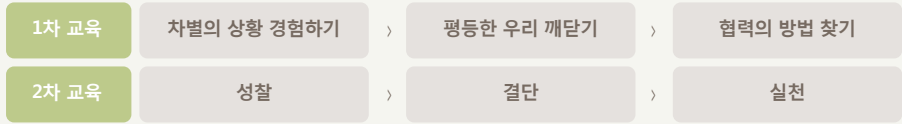
굿네이버스의 대인관계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의 대표적인 교육은 학교폭력예방교육 “Be Together! I, II”와 세계시민교육 “One Heart!_어린이 NGO활동가”, “ME TO WE_NGO활동가”로 자세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교육 “Be Together! I, II”

★ 교육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교육목적 : 학교폭력의 상황에서 대다수 방관자가 되는 아이들이 공감훈련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방언자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자 함.

★ 교육내용 :



학교폭력예방교육 “Be Together! I, II” 참여자 인터뷰



영상 속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는 장면과 도와주고 싶었지만 무관심, 이기심, 두려움(방관의 이유)으로 방관할 수 밖에 없었던 방관자들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무관심한 행동은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따돌림 당하는 친구에게는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는 무관심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폭력을 봤을 때 그 친구를 도와 주고 싶었는데 방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도 똑같이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서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3의 법칙' 영상을 보고 **저처럼 방언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3명이 모이면 우리 교실이 학교폭력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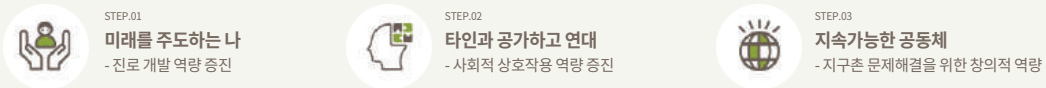
적절한 교수학습자료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유익했습니다. 교육 후 **서로에게 상처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1일 약속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급내 긍정적 역동**이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One Heart!_어린이 NGO활동가”, “ME TO WE_NGO활동가”

★ 교육대상 :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및 중고등학생

★ 교육목적 : NGO 활동가의 가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체험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협력과 나눔을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함.

★ 교육내용 :



세계시민교육 “One Heart!_어린이 NGO활동가” 참여자 인터뷰



교육 전에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나라 친구들이 불쌍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불쌍하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긴급구호 상황을 영상으로 본 뒤 활동을 함으로서 현실감이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집중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범위를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세계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NGO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다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공감하며, 어떤 방향으로 도와야할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굿네이비스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이 지구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건강한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더욱더 나눔인성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교육문의

- 서울본부 02-812-2040 · 강원본부 033-813-8008 · 대구경북본부 053-951-1391 · 인천본부 032-442-1391
- 충청본부 042-826-9601 · 경남울산본부 055-334-1256 · 경기1본부 031-283-1391 · 광주전남본부 062-376-6566
- 부산제주본부 051-711-5670 · 경기2본부 031-908-1391 · 전북본부 063-222-4157
-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 대표전화: 02-6717-4000

참고문헌 |

- 굿네이비스(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동의 인성 역량(발간예정).
- 김동일·고혜정·김은향·이현웅·김현수·서미·이윤복·이윤선·홍성두(2016).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
- 김동일·오현석·송영숙·고은영·박상민·정은혜(2009). 대학 교수가 바라본 고등교육에서의 대학생 핵심역량. 아시아교육연구, 10(2), 195-214.
- 김봉년(2012). 아이의 친구관계, 공감력이 답이다. 조선앤북.
- 김연화·정영숙(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103-114.
- 김왕배(2014). 한국의 교육열. 지식의 지평, 17, 104-120.
- 류성진(2009).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행위가 자녀의 감정조절능력 및 인지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 53(5), 6-30.
-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KISTEP·KAIST(2017). 미래전략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지식공감.
- 송진영(2016).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7), 29-58.
-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 이성화·김희화(2016).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친구간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조망수용의 매개효과와 공격성의 중재효과. 인지발달중재학회지, 7(3), 105-121.
- 정창우(2015).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파주: 교육과학사.
- 정창우·손경원·신원영(2015). 굿네이비스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굿네이비스.
- 조난심·문용린·이명준·김현수·김현지·이우용(2004). 인성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채진영(2012). 아동의 학습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1), 71-87.
- 한국투명성기구(2017). 청소년 청렴의식 조사 결과. http://www.ti.or.kr/xe/board_oKbG36/82291
- 현주·임소현·한미영·임현정·손경원(2014). 초·중·고등학생 인성수준 조사 및 검사도구의 현장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현주·정명림·정광희·한미영·류덕엽(2014). 초·중·고등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II):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한국교육개발원.
- 흥사단투명사회본부(2016). 2015 대한민국 청소년 정직지수 결과.
- Lobel, O. (2014). 인재 쇼크. 김병순 역. 싱긋.
- OECD(2017). Employment Outlook 2017.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새로운 현재.
- WEF(2016). The Future of Jobs.
- “초·중·고 6만명 정서·행동 상담치료 필요...30%는 치료사각”. 『중앙일보』 .2016. 9. 22.
<http://news.joins.com/article/20622143>